

2024 새해 이렇게

우승희 영암군수

월출산·영암천 생태축 연결 생태문화도시 조성 매진



바둑·축구·수영 클럽 활성화 체육산업 강화... 스포츠텔 건립 추진 정주 여건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해 인구 6만 회복 초석 다질 것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생태탐방원을 중심으로 영암을 ‘달빛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해 인구 6만 회복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광주일보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달빛생태문화도시’와 ‘청년활력도시’, ‘영암형 에너지 대전환’ 등 영암이 올해 내건 군정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우 군수는 지난해 유지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생태탐방원에 대한 성과를 올해 ‘달빛생태문화도시’ 조성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는 영암읍 교동지구 문화융복합단지도 거듭난다. 옛 대동공장과 영보 유리은실은 문화융복합단지의 핵심 시설로 탈바꿈한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생태

탐방원 두 국책기관과 각종 문화시설은 달빛생태문화도시의 이름으로 ‘문화벨트’를 구축하는 요소가 된다. 월출산과 영암천을 생태축으로 연결하고, 은적산과 백룡산, 기찬뒤편과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생태로드’를 만든다.

군서면에서는 ‘호남명촌 구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서한옥체험관을 새로 단장하고 상대포경관 조명, 마을호텔 등을 마련해 구립사거리 일대가 다시 활기를 찾는 ‘구립 관광 르네상스(부흥)’ 시대를 열 계획이다.

전환사 권역은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월출산국립공원 박물관 개조를 연계해 이곳을 경제관광 집적단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우 군수는 바둑 본향 영암에서 지난해 말 바둑팀을 창단한 것을 계기로 스포츠 강군의 면모를 가다듬을 생각이다.

그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만들어 군민과 접촉을 늘리겠다”며 “마한의 심장 영암” 바둑팀, 축구·수영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체육산업 강화를 위해 스포츠텔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일자리 카페’와 ‘청년 취·창업사업’ 지원 등을 펼친다.

영암군이 내건 ‘청년활력도시’를 이루기 위해 영암읍 달맞이공원에 청년종합소통센터를 열고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한다.

영암에 사는 청년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교육과 진로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우 군수는 “영암 인구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 증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문도시 영암을 이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해 인구 6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처음 생산한 항암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해 기능성 쌀 생산에 집중하고, ‘무화과산업 발전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무화과 농업을 영암군의 주력 산업을 키워낼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영암군은 영암군에너지센터 기후위기 대응 전진기지로 삼아 ‘영암형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한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군민발전소를 설립하고, 이의 공유제를 도입해 주민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타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를 중심으로 대불산단 대개조 사업을 벌여 산단 경쟁력을 강화한다.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 실증사업을 지역 내 개조 전기차 상용화로 연결해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다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최악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분예산 6490억원 편성으로 영암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유지한 대형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혁신 정책과 행정 혁신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목포 한전 단가공사 기준미달 의혹 업체 적격심사 통과

지역에 사무실 없이 등기부등록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목포전력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2024-2025년 목포전력지사 변전철타설공사 총액공사(이하 단가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전기공사법 시행령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에 명시된 본점 사무실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등기부등록만 해놓고 사무실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제한경쟁을 통해 총액별 단가공사를 실시했으며, 보험료와 안전제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2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자격은 345KV급 변전소 건설공사, 변전전문 변압기2급, 변전전문 개폐기2급 등의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업체가 대상이다. 여기에 공사업체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반드시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무실의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서류상 검토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없어도 서류상 등록되어 있으면 공사용역 입찰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취재 과정에서 목포전력지사 관계자는 사무실 유무를 실사,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업체 사무실밖에 없어 재차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제보자 A씨는 “낙찰된 업체 사무실이란 주소지를 실제로 가 보았으나 다른 업체 사무실만 존재하고 낙찰받은 업체의 사무실은 없었고, 심지어는 간판도 없어 황당했다”며 “지역별로 지사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된 사무실 실사 확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무실 확인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관련 법도 적격심사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수협,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금 4000만원

활어위판장 수익금 일부 전달

목포수협이 최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목포수협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활어위판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8회에 걸쳐 총 3억2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목포수협의 장학금 기탁과 사회공헌이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의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지난 연말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팔라소풀’이 이용객들로 가득찼다.

<완도군 제공>

완도 해양치유센터 매진 행렬...개관 40일만에 7000명 방문

새해 첫날 400여명 찾아

50% 할인 1월말까지 연장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찾는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25일 센터 공식 개관이후 최근까지 40여일간 7000여명이 방문해 해양치유를 체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 연말 두 차례의 짧은 연휴기간에는 무려 2000명, 새해 첫날에만 400여명이 센터를 방문해 인터넷 예약뿐만 아니라 현장 판매까지 매진됐을 정도였다.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90% 이상이 재방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60대까지 이용객의 연령층이 다양했으며, 특히 30대(248명)부터 50대(425명), 60대(868명)로 갈수록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1층에서는 팔라소풀, 머드 테라피, 해조류 거품 테라피가 인기가 많았고, 2층은 스킨, 향기, 해조류 머드 랩핑 테라피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해양치유 시설이다.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끌어올린 해수를 정화시켜 채운 ‘팔라소풀’에서 수압마사지와 수중운동을 하고,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등 총 16가지 다양한 해양치유를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1월 말까지 이용권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추성우 완도해양치유담당관 센터운영팀장은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양치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의료취약지 4월부터 비대면 화상진료

해남군이 오는 4월부터 의료취약지역 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비대면 화상 진료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4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가능하게 됐다.

공중보건사가 없는 보건지소·진료소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다른 권역의 공중보건사의에게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본격적인 원격협진 서비스는

오는 4월 중 시작되며,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공중보건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원격협진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세얼굴

“서해 해양주권 수호·해양안전 확보 최선”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

“광활한 서해바다 해역의 민생지안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28대 서장으로 취임한 권오성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해바다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종합해양안전망을 구축해 해양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권 서장은 “공직자로서 사명과 임무를 명확하게 인식해 사무실과 합정, 파출소 등 각자의 위치



에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성 서장은 대구 영신고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경찰간부 후보생(47기)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동해해경서장,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동해지방청 기획운영과장, 남해지방청 안전총괄부구조안전과장, 제주지방청 기획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